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성 연구

오은영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A Study on Relation of between Focusing Manner and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Eun-Young Oh
Dept. of Nursing, Kkottongnae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포커싱적 태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간호학과 재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하여 2018년 12월에 자료를 수집하였고 다중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포커싱적 태도는 임상수행능력에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인 '표현하기'는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요인인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15.7%~19.9%이었다. 따라서 학부과정동안 간호학과 대학생들이 '상황에 알맞은 표현하기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교수-학습방법의 적극적 반응을 제안한다.

주제어 : 관계, 포커싱적 태도, 임상수행능력, 간호, 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he relation between the focusing manner and clinical competence an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he focusing manner on clinical competence. In December 2018, data were collected from 189 university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and analyzed using a multiple regression. As a result, major satisfaction and focusing manner of nursing university students were identified as major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particular, 'expressing', a sub-factor of the focusing mann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b-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ability, 'nursing process, nursing skill, teaching and cooperat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communication,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and explanatory power was 15.7%~19.9%. Therefore, during the undergraduate course, it is suggested that university students in the nursing department actively develop teaching-learning methods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to improve 'the ability to express appropriately for the situation'.

Key Words : Relationship, Focusing Manner,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2018 Academic Research Grant from KKOTTONGNAE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 Eun Young Oh(oey0443@hanmail.net)

Received June 23, 2020

Revised July 21,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질병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기술을 제공하는 것 이외에도 대상자, 가족,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통하여 대상자의 건강을 촉진할 수 있는 전인적인 간호의 당위성을 가진다[1, 2]. 이러한 학문적 특징을 반영하여 간호교육에서는 보건의료현장에서 요구하는 간호사의 역량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학생들은 성과기반의 교육목표를 통해 다양한 간호학 이론과 실습 교과목을 배우고, 결과물로서 미래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합당한 의식과 행동 수준으로 변화되도록 하고 있다[2, 3].

그러한 결과의 산물은 간호대학생들이 학부과정을 통해 갖추어야 할 역량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3]. 임상수행능력은 간호상황에 따른 대상자의 기본요구 충족을 위해 간호업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간호지식과 근거기반의 기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태도와 판단을 통합적으로 적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4-7]. 이는 단번에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가면서 단계마다 요구되는 과업을 완수해감으로써 초보자 수준에서 숙련자 수준으로 점차 발전해나가게 된다[4, 8, 9].

간호대학생에게 요구되는 과업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지속적인 학습 과정과 숙련된 임상 기술을 함양하는 것으로, 교육과정에 따라 이론과 실습수업의 병행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실습현장에서는 간호 상황에서 발생하는 내면의 감정변화 인식하고 조절하면서 상황에 맞게 적극성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다양한 상황에서의 현장적응력을 키우게 된다[10, 11]. 한편, 이러한 과정은 간호대학생들에게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증가시키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시간을 점점 더 감소시키게 되며 타 학과 대학생들보다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12, 13].

실제로 간호대학생들은 임상 실습이 시작되는 3학년 시점부터 학업소진을 경험하며 무능력, 냉담, 실습에 대한 위협감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 15].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부과정 동안 학업소진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으로 보이고 스트레스도 더욱 가중되며, 그로 인해 결국 학업을 포기하게 되거나 취업 이후 1년까지도 영향을 미쳐 이직 의도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인다고 하였다[13, 16]. 따라서 학

부과정 동안 간호대학생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스트레스를 낮추는 전략으로 최근 보고되는 개념이 포커싱적 태도이다. 포커싱적 태도는 자기 인식을 통한 정서적 치유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며 신체 감각을 자각하는 훈련을 통해 관련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본다[17-19]. 포커싱적 태도는 일상의 문제나 고민에 대한 자신의 감각, 느낌, 감정, 기분에 집중하며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표현하게 되면, 여유를 가지게 되고 자신의 몸이 알아서 해결책도 제공하게 된다는 것으로 결국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된다[17, 18, 20].

선행연구[19]에서는 포커싱적 태도와 신체화 증상 및 감정 표현 불능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여 감정의 적절한 표현이 우울감이나 불안 증세 등의 신체화 증상을 감소시키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주은선 등[21]의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와 자기조절과의 상관성을 보고하였고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표현하기는 자신 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자시의 문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 자기 이해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현실을 직시하고 다양한 상황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임상수행능력과 포커싱적 태도와의 관계성을 자세히 살펴보는 과정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국내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의 영향요인으로 창의성, 문제해결능력, 자기주도적 학습능력[22], 의사소통능력, 대인관계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전공만족도[23]가 제시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정서적 요인과의 관계성을 살펴본 연구는 감성지능과 임상실습스트레스[24], 회복탄력성[25] 등이 있었다. 한편, 자기 인식과 정서적 치유를 함께 평가할 수 있는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성을 파악한 선행연구[26, 27]의 수는 매우 적어 반복연구를 통한 검증의 과정이 요구된다. 따라서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 정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가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표집 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C도에 소재한 C대학, K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연구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서면으로 동의한 자들이다. 임상수행능력에 대한 독립 변수의 설명력은 유승연과 유정희[26]의 연구에서 29.1%이었으며 $f^2 = R^2_{YB} / (1 - R^2_{YB})$ 식을 적용한 결과 효과크기는 0.41이었다. G power 3.1을 이용하여 효과크기 $f^2 = 0.15$, 유의수준 $\alpha = .05$, 검정력 $(1 - \beta) = .80$, 예측변수를 19개로 설정했을 때 필요한 연구의 표본크기는 153명이었고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190부로 결정하였다. 배부한 설문지 중 1부는 일부 문항이 누락되어 제외하였고 총 18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 도구

포커싱적 태도는 주은선 등[21]의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Korean Focusing Manners Scale-Revised: KFMS-R) 개정판을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1문항, 5개의 하위 요인, 3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하위 요인은 알아차리기 9문항, 여유 갖기 6문항, 표현하기 5문항, 되새겨보기 8문항, 받아들이기 3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주은선 등[21]의 연구에서 한국판 포커싱적 태도 척도의 개정판에 대한 타당도가 입증되었으며, 유승연과 유정희[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8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는 .84, .72, .72, .76, .56이었다.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최미숙[5]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45문항, 5개의 요인, 5점 Likert 척도로 구성되어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간호과정 11문항, 간호기술 11문항, 교육 및 협력관계 8문항, 대인관계 및 의사소

통 6문항, 전문직 발전 9문항으로 구분된다. 최미숙[5]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각 요인별 신뢰도는 .84, .87, .84, .82, .84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7이었고 각 하위 요인별 Cronbach's α 는 .89, .91, .89, .87, .89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한 도구는 모두 저자로부터 도구 사용의 승인을 얻었다.

2.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의 수집은 2018년 12월 1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해당 학과의 동의를 얻어 홍보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 목적과 연구 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음을 설명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격려했다.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코드화하여 이용하고 자료 분석이 완료된 이후에는 폐기하였다. 연구에 응한 참여자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0.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통계분석의 유의수준은 $\alpha = .05$ 로 하였다. 종속 변수에 대한 정규성 검정을 확인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은 0.05보다 큰 유의수준 값을 나타내었다. 연구 변수는 -2에서 +2사이의 왜도 값을 가졌으며 히스토그램에서 정규 분포의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포커싱적 태도, 임상수행능력은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파악하였다. 일반적 특성 중 명목변수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은 t-test와 ANOVA를 사용하였고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 포커싱적 태도 및 그 하위 요인, 임상수행능력 및 그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포커싱적 태도와 그 하위 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임상수행능력 및 그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Table 1 참고), 평균 연령은 22.74세이었으며 간호학과에서 여학생의 비율은 84.1%이었고 남학생은 15.9%으로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월등히 높았다. 성격은 내성적인 경우는

53.4%. 외향적인 경우는 46.6%이었고 대상자의 76.2%가 중정도의 경제수준이라고 답하였다.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는 평균 2.18점, 삶의 질 점수는 평균 3.60점으로 모두 중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 점수도 평균 3.77점으로 중 수준보다 약간 높았다. 대상자의 포커싱적 태도 점수는 평균 2.02점이었고 하루 요인인 받아들이기와 표현하기 점수는 각각 2.23점, 2.21

점으로 여유 갖기, 알아차리기, 되새겨보기의 각 평균 점수 1.91점, 1.89점, 1.85점보다 약간 높았다. 종속변수인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평균 3.67점이었고 5가지 하위 요인의 점수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ependent and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participants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or M±SD(Range)
Gender	Male	30(15.9)
	Female	159(84.1)
Age (yr)		22.74±1.60(20-30)
Religion	Yes	73(38.6)
	No	16(61.4)
Personality	Introspective and passive	101(53.4)
	Outgoing and active	88(46.6)
Economic level	Award level	28(14.8)
	Middle level	116(61.4)
	Lower level	45(23.8)
Perceived health state		2.18±0.57(1-3)
Satisfaction on QOL		3.60±0.78(1-5)
Academic performance	2.99≥	21(11.1)
	3.00 ~ 3.99	140(74.1)
	4.00≤	28(14.8)
Satisfaction on major		3.77±0.78(1-5)
Focusing manner		2.02±0.30(1.00-3.00)
Awareness		1.89±0.47(1.00-3.00)
Keep one's composure		1.91±0.44(1.00-3.00)
Express		2.21±0.42(1.00-3.00)
Reflect		1.85±0.41(1.00-3.00)
Accept		2.23±0.45(1.00-3.00)
Clinical competence		3.67±0.52(1.00-5.00)
Nursing process		3.70±0.49(1.00-5.00)
Nursing skill		3.63±0.60(1.00-5.00)
Teaching/coordinating		3.71±0.58(1.00-5.00)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3.66±0.63(1.00-5.00)
Professional development		3.67±0.61(1.00-5.00)

Table 2. Clinical competence by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189)

Characteristics	Categories	Clinical competence		
		M±SD	t/F	p
Gender	Female	3.64±0.49	-2.26	.<05*
	Male	3.87±0.64		
Religion	Yes	3.64±0.48	-0.64	.518
	No	3.69±0.54		
Personality	Introspective and passive	3.61±0.51	-1.86	.064
	Outgoing and active	3.75±0.53		
Economic level	Award level	3.68±0.64	2.60	.077
	Middle level	3.61±0.47		
	Lower level	3.82±0.55		
Academic performance	2.99≥	3.68±0.56	0.02	.974
	3.00 ~ 3.99	3.67±0.52		
	4.00≤	3.69±0.50		

*p<.05 **p<.01 ***p<.001

3.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Table 2 참고)은 성별($t=-2.26,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았고 종교($t=-0.64, p=.518$), 성격($t=-1.86, p=.064$), 경제 수준($t=2.60, p=.077$), 학점($t=0.02, p=.974$)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는 없었다.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독립변수 및 종속변수와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속변수인 연령과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전공 만족도, 포커싱적 태도 및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다(Table 3 참고). 연령을 제외하고는 대상자의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전공 만족도, 포커싱적 태도는 임상수행능력 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5, p<.05$; $r=.27, p<.001$; $r=.30, p<.001$; $r=.34, p<.001$). 즉, 간호대학생의 지각된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 만족도가 높을수록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높게 나타났다.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과 임상수행능력의 하위 요

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는 임상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14, p<.05$; $r=.39, p<.001$; $r=.23, p<.01$; $r=.26, p<.001$). 즉, 간호대학생의 경우 알아차리기를 잘 할수록, 표현을 잘 할수록, 되새겨보기를 잘 할수록, 받아들이기를 잘 할수록 임상수행능력의 점수가 높음을 의미한다.

3.4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연관성을 나타낸 성별,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전공 만족도, 포커싱적 태도 점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참고). 회귀 분석을 수행하기 전 Durbin-Watson 검정을 이용하여 종속변수의 독립성을 평가한 결과 각각 1.858, 1.936, 1.915, 1.949, 2.034로 나타나 잔차의 자기상관성이 없었다. 회귀모형의 공차는 모두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계수는 모두 10 이하의 값을 나타내어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었다. 회귀 분석을 수행한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는 임상수행능력의 모든 하위 영역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

Table 3. Correlation of Clinical competence and Possible Covariates

(N=189)

Variable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0.00 (.954)	1									
3	0.12 (.093)	0.32 ($<.001$)***	1								
4	0.08 (.256)	0.24 ($<.001$)**	0.65 ($<.001$)***	1							
5	-0.11 (.877)	-0.21 ($<.01$)**	-0.09 (.210)	-0.06 (.362)	1						
6	0.18 ($<.05$)*	0.13 (.065)	0.17 ($<.05$)*	0.09 (.196)	0.03 (.610)	1					
7	0.09 (.203)	0.03 (.608)	0.10 (.139)	0.15 ($<.05$)*	0.21 ($<.01$)**	0.22 ($<.01$)**	1				
8	0.14 (.051)	-0.05 (.427)	0.05 (.468)	0.04 (.539)	0.59 ($<.001$)***	0.20 ($<.01$)**	0.34 ($<.001$)***	1			
9	-0.01 (.585)	-0.05 (.442)	0.10 (.134)	0.10 (.151)	0.53 ($<.001$)***	0.22 ($<.01$)**	0.45 ($<.001$)***	0.44 ($<.001$)***	1		
10	0.11 (.119)	-0.05 (.484)	0.10 (.169)	0.09 (.199)	0.71 ($<.001$)***	0.49 ($<.001$)***	0.64 ($<.001$)***	0.75 ($<.001$)***	0.78 ($<.001$)***	1	
11	0.12 (.080)	0.15 ($<.05$)*	0.27 ($<.001$)***	0.30 ($<.001$)***	0.14 ($<.05$)*	0.12 (.085)	0.39 ($<.001$)***	0.23 ($<.01$)**	0.26 ($<.001$)***	0.34 ($<.001$)***	1

* $p<.05$ ** $p<.01$ *** $p<.001$

Variable 1. Age (yr); 2. Perceived health state; 3. Satisfaction on QOL; 4. Satisfaction on major; 5. Awareness; 6. Keep one's composure; 7. Express; 8. Reflect; 9. Accept; 10. Focusing manner; 11. Clinical competence.

Table 4. Factors influencing Sub-categories of Clinical competence

(N=189)

Variables	Sub-categories of clinical competence										
	Nursing process			Nursing skill			Teaching & coordinating				
	β	t	p	β	t	p	β	t	p		
Gender*	0.12	1.67	.095	0.12	1.88	.061	0.12	1.68	.093		
Perceived health state	0.10	1.49	.138	0.04	0.54	.584	0.06	0.91	.362		
Satisfaction on QOL	0.01	0.10	.913	0.13	1.43	.153	0.01	0.11	.913		
Satisfaction on major	0.22	2.52	<.05*	0.02	0.30	.763	0.12	1.38	.166		
Sub-categories of focusing manner	Awareness	0.02	0.25	.803	0.05	0.58	.560	0.06	0.71	.475	
	Keep one's composure	-0.05	-0.77	.441	-0.06	-0.81	.416	-0.11	-1.49	.136	
	Express	0.22	2.92	<.01**	0.28	3.70	<.001***	0.30	3.92	<.001***	
	Reflect	0.05	0.63	.528	0.14	1.58	.114	0.02	0.27	.784	
	Accept	0.09	1.03	.303	-0.03	-0.35	.723	0.08	0.93	.350	
			Adj. R ² =.177, F=5.48, p<.001			Adj. R ² =.156, F=4.87, p<.001			Adj. R ² =.157, F=4.89, p<.001		
Tolerance	0.490-0.847			0.490-0.847			0.490-0.847				
VIF	1.181-2.040			1.181-2.040			1.078-2.040				
Durbin Watson	1.858			1.936			1.915				
Variables	Sub-categories of clinical competence										
	Interpersonal relationship & communication			Professional development							
	β	t	p	β	t	p					
Gender*	0.02	0.37	.708	-0.00	-0.11	.910					
Perceived health state	0.11	1.59	.112	0.04	0.65	.517					
Satisfaction on QOL	0.11	1.26	.207	0.11	1.30	.193					
Satisfaction on major	0.14	1.60	.110	0.21	2.51	<.05*					
Sub-categories of focusing manner	Awareness	0.09	1.03	.301	0.00	0.08	.932				
	Keep one's composure	0.01	0.23	.814	0.02	0.29	.770				
	Express	0.29	3.87	<.001***	0.22	2.93	<.01**				
	Reflect	0.04	0.52	.601	0.05	0.63	.525				
	Accept	-0.00	-0.05	.959	0.10	1.18	.238				
			Adj. R ² =.192, F=5.96, p<.001			Adj. R ² =.199, F=6.20, p<.001					
Tolerance	0.490-0.847			0.490-0.847							
VIF	1.181-2.040			1.181-2.040							
Durbin Watson	1.949			2.034							

*p<.05 **p<.01 ***p<.001

* dummy variable

은 15.7%~19.9%이었다(F=5.48 p<.001; F=4.87 p<.001; F=4.89 p<.001; F=5.96 p<.001; F=6.20 p<.001). 전공 만족는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요인 중 '간호과정'과 '전문직 발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F=5.48 p<.001; F=6.20 p<.001). 즉, 간호대학생은 전공 만족도가 높고 포커싱적 태도가 높은 경우에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예측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포커싱적 태도이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포커싱적 태도를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그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포커싱적 태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대학생은 미래의 보건의료자로서 성공적인 역할 수행을 위해 교육과

정 동안 임상수행능력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 점수는 3점 만점에 평균 2.02점으로 중 수준 이상의 점수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인다현과 주은선[20]의 연구와 일부 유사한 결과로서 참여자의 성별과 연령대의 유사성 때문으로 추론된다. 선행연구[28]의 참여자는 20대의 여대생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간호학과 특성상 여학생의 비율이 84.1%로 남학생보다 훨씬 많은 수를 차지하였으며 20대 이었다. 특히 받아들이기와 표현하기 점수가 높게 나타나 신세대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느낌이나 기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경향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임상수행능력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평점 3.67점으로 중 수준 이상을 나타내었고 박현숙과 한지영의 연구[22]에서의 3.39점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이는 대상학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졸업을 앞둔 4학년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선행연구에서는 3, 4학년 대상이었으며 3학년 비율이 72.8%로 4학년보다 2.6배 많았다. 다만, 하위 요인 중 '간호기술'은 전체 평균 평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다. 임상 실습 동안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직접 실습에 제한이 따르는 점을 고려하여 실제적인 실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가상현실 기반의 실습전략을 모색하거나 자신감과 같은 요인을 높여 임상수행능력을 향상하게 되는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이 차이를 알아본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임상수행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박현숙과 한지영의 연구[22], 양야기의 연구[23]에서 성별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남학생의 점수가 여학생의 점수보다 높았던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생물학적인 요소나 사회 문화적 특성 때문인지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 측정된 임상수행능력은 자가설문형태로 수집된 자료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거나 질적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는 요소가 무엇인지 파악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은 지각된 건강상태, 삶의 만족도, 전공만족도 및 포커

싱적 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26]에서도 포커싱적 태도는 간호업무성과와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양호한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자신의 삶이나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 자신을 탐색하여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과 임상수행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 표현하기, 되새겨보기, 받아들이기'는 임상수행능력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간호실무에서 간호과정을 하는 동안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임상적 판단모형이 속성들을 살펴봄으로써 포커싱적 태도와의 상관성을 유추할 수 있겠다. 간호 실무에서 접하게 되는 대상자 대부분은 교과서에 배운 대로 명쾌한 해결책을 보여주는 건강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고 궁금해 하며, 대상자에게 이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다른 관점 갖기와 해석하기를 탐색하도록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된다[28]. 이를 위해 간호교육과정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간호사정, 간호진단, 간호계획, 간호수행, 간호평가 등 일련의 체계적인 간호과정을 적용하고 단계마다 임상적 판단을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도록 훈련한다. 임상적 판단에서 첫 번째로 사용하는 알아차리기는 대상자의 현재 상황이나 문제가 검진자의 임상경험, 지식 등의 결합해서 알아차린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은 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추론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이것이 해석하기 방법이다. 이어서 대상자에게 필요한 적절한 중재를 결정하는 것이 반응하기이며 상황에 대한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대상자에게 적용하게 될 최후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반영하기이다. 이러한 판단능력은 개인의 관심, 지식, 해석, 태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29]. 또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의 지속적인 영향으로 인해 의사결정의 자율적 조절, 오류감지, 말하기, 기억, 감정 등이 파괴되어 상황에 따른 임상수행능력이 감소하게 되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설명된다[28]. 포커싱적 태도는 어떤 문제나 경험에 대한 신체에서 느껴지는 반응을 그대로 알아차리고 변화를 허용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자기를 인식하고 정서적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알아차리기, 되새겨보기, 표현하기, 여유 갖기 및 반영하기의 과정을 거친다[21]. 포커싱적 태도가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개념이라면 임상적 판단은 타인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자기를 조절하여 최종선택을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생각해볼 점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시되는 교육 역량, 개인 역량, 문화 역량, 연구 및 전문가적 역량 중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데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7]. 개인적 역량은 자신을 알아차리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능력과도 연관성을 가지며[7] 이는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는 포커싱적 태도의 '표현하기'와 전공만족도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15.7%~19.9%이었다.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의 하위요인 중 '간호과정과 전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 하면 특히, 포커싱적 태도 중 '표현하기'는 임상수행능력의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모두를 설명하는 주요한 설명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유승연과 유정희 연구[26]에서도 포커싱적 태도가 간호업무성과의 핵심설명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설명 변인을 알아본 선행 연구[27]에서도 포커싱적 태도는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주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는 포커싱적 태도가 높을수록 간호업무성과를 높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결과를 포함하여 해석하면 간호대학생의 경우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고 표현하기 기술을 자주 사용하도록 독려하면 임상수행능력도 높일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주은선 등[21]은 개정판 포커싱적 태도의 타당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 요인 중 알아차리기, 되새겨보기, 표현하기가 자기조절능력과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표현하기와 스트레스 반응이 음의 상관관계임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덧붙였다.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느낌에 집중하여 의미를 다시 되새겨보는 과정은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이지만 내면에서 과도하게 느끼게 된 감각, 감정, 또는 기분을 자연스럽게 말하기만 하여도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경험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표현하기를 통해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게 되면 자기조절능력을 높아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표현하기는 자기 자신을 조절함으로써 임상수행능력과의 하위 요인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개정판 포커싱적 태도 중 표현하기에 대한 문항들을 몇몇 살펴보면 “나의 기분을 적절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낱말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상대방과 대화한다, 나의 감정을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만 사용한다, 내가 느낀 것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려고 노력한다.” 이다. 이 문항들은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면서 그 감정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내기 위해 적절하게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고 표현할 때 상대방과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을 묻는 문항들이다. 간호교육과정에서는 간호과정과 임상적 판단의 적용하기 뿐 아니라 대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언어적 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능력도 중요하게 다룬다[9, 23, 30]. 성공적인 의사소통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경청하는 태도뿐만 아니라 상황에 맞게 적절한 표현하기 기술도 매우 중요하다[30]. 간호사는 끊임없이 대상자와 소통하기 위해 표현하는 과정을 계속하기 때문이다[9]. 따라서 간호대학생은 4년간의 간호교육을 통해 상대방과의 의사소통을 할 때 표현하기를 시기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싱적 태도의 충점을 확인하고 세부적인 작업으로 5개의 하위 요인을 측정하여 '표현하기'가 임상수행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파악하였다. 이는 의미 있는 연구의 결과이며 포커싱적 태도의 임상적 활용에 있어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2개 대학의 간호대학생들 로만 편의 표집으로 조사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와 같은 변수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점을 반영한 상관성 연구를 통해 포커싱적 태도가 스트레스를 낮추는 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음의 타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과의 연관성을 파악함에 있어 각 변수들이 내포하는 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성을 알아보는 세밀한 작업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포커싱적 태도와 전공만족도는 임상수행능력을 예측하는 주요변수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15.7%~19.9%이었다. 특히, 포커싱적 태도의 하위요인 중 '표현하기'는 임상수행능력이 내포하는 '간호과정, 간호기술, 교육 및 협력관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전문직 발전' 모두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영향요인이며 전공만

족도는 ‘간호과정과 전문적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뿐만 아니라 특히 포커싱적 태도 중 표현하기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상황에 맞게 잘 표현할 기회를 많이 제공하기 바란다. 아울러 간호대학생을 위한 포커싱적 태도를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본 연구의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더 나아가 개발된 프로그램이 간호대학생의 포커싱적 태도와 임상수행능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REFERENCES

- [1] A. H. Bishop, & J. R. Scudder. (1999). A philosophical interpretation of nursing. *Scholarly Inquiry for Nursing Practice*, 13(1), 17–27.
- [2] C. J. Kim, Y. H. Ahn, M. W. Kim, Y. O. Jeong, & J. H. Lee. (2006). Development of standards and criteria for accreditation of a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program: Reflections on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nursing profess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6), 1002–1011. DOI : 10.4040/jkan.2006.36.6.1002
- [3] B. Y. Kim, M. J. Chae, & Y. O. Choi. (2018).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clinical competency scale for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Community Health Nursing*, 29(2), 220–230. DOI : 10.12799/jkachn.2018.29.2.220
- [4] W. H. Lee, C. J. Kim, J. S. Yoo, H. K. Hur, K. S. Kim, & S. M. Lim. (1990). Development of a clinical competency measurement tool for student. *Yonsei Nursing*, 13, 17–29.
- [5] M. S. Choi. (2005).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ing effectiveness of clinical nursing education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of Korea, Seoul.
- [6] B. Campbell, & G. Mackay. (2001). Continuing competence: An ontario nursing regulatory program that supports nurses and employers. *Nursing Administration Quarterly*, 25(2), 22–30. DOI : 10.1097/00006216-200101000-00006
- [7] B. Nehrir, Z. Vanaki, J. Mokhtari Nouri, S. M. Khademolhosseini, & A. Ebadi. (2016).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A systematic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Travel Medicine and Global Health*, 4(1), 3–11. DOI : 10.20286/ijtmgh-04013
- [8] P. Benner. (1992). *From novice to expert: Excellence and power in clinical nursing practice*. 1984. San Francisco: Addison-Wesley.
- [9] K. E. Lee, N. S. Ha, & S. Y. Kil. (200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disclosure and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0(3), 571–583. DOI : 10.4040/jkan.2000.30.3.571
- [10] H. J. Choi, & E. J. Lee. (2012). Mediation effects of self-efficacy between academic stress and college adjustment in first year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2), 261–268. 2012. DOI : 10.7739/jkafn.2012.19.2.261
- [11] Y. J. Bae, & S. Y. Park. (2014). Study on predictors of academic resili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3), 1615–1622. DOI : 10.5762/KAIS.2014.15.3.1615
- [12] K. H. Chun. (2014).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burnout of medical and graduate students and related variables.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16(2), 77–87. DOI: 10.17496/kmer.2014.16.2.077
- [13] E. H. Lee. (2019). Effect of resilience on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6), 178–187. DOI : 10.5762/KAIS.2019.20.6.178
- [14] M. J. An, et al. (2017). Comparison of academic engagement, academic burnout, stress, and social support by grade among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chool Health*, 30(2), 113–123. DOI : 10.15434/kssh.2017.30.2.113
- [15] I. J. Deary, R. Watson, & R. Houston. (2003). A longitudinal cohort study of burnout and attri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3(1), 71–81. DOI : 10.1046/j.1365-2648.2003.02674.x
- [16] A. Rudamn, & J. P. Gustavsson. (2012). Burnout during nursing education predicts lower occupational preparedness and future clinical performance: A longitudi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Nursing Studies*, 49(8), 998–1001. DOI : 10.1016/j.ijnurstu.2012.03.010
- [17] E. T. Gendlin. (1996). *Focusing-oriented psychotherapy*.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18] E. S. Joo. (1999). A practical guide to focusing. *Korean Journal of Psychotherapy*, 12(15), 90–99.
- [19] E. S. Joo, & S. W. Choi. (2013). The effect of group therapy using focusing on somatization, negative affect and alexithymia of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32(4), 777–802.
- [20] D. H. In, & E. S. Joo. (2018). The effects of dispositional self-focused attention and focusing manner on somatic symptoms female university student.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9(4), 797–812. DOI : 10.22143/hss21.9.4.56
- [21] E. S. Joo, S. A. Shin, B. S. Kim, & J. Y. Kim. (2016).

Development and validity analysis of Korean Focusing Manner Scale-Revised (KFMS-R).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4(1), 23-33.
DOI : 10.17547/kjsr.2016.24.1.23

- [22] H. S. Park, & J. Y. Han. (2013). Factors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0(4), 438-448. DOI : 10.7739/jkafn.2013.20.4.438
- [23] Y. K. Yang. (2018). Influences of communication skill and interpersonal ability on clinical competence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25(2), 99-108. DOI : 10.7739/jkafn.2018.25.2.99
- [24] O. S. Lee, & M. O. Gu.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4(6), 2749-2759. DOI : 10.5762/kais.2013.14.6.2749
- [25] E. M. Park, & Y. Song. (2019). Predictors of emotional labor and resilience on clinical competency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5(3), 357-365. DOI : 10.5977/jkasne.2019.25.3.357
- [26] S. Y. Yoo, & J. H. Yu. (2017). The influence of focusing manner and emotional labor on nursing performa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Clinical Nursing Research*, 23(3), 341-349. DOI : 10.22650/JKCNr.2017.23.3.341
- [27] S. Y. Yoo. (2017). The relationships among focusing manner,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8(5), 781-799. DOI : 10.22143/HSS21.8.5.44
- [28] P. A. Potter, A. G. Perry, P. Stockert, & A. Hall. (2016). *Fundamentals of Nursing* 9th Edition. Elsevier Mosby. (Translated by D. S. Lee et al., Fundamentals of Nursing 9th Edition : Chapter 5. Critical Thinking in Nursing Practice. 65-78. Seoul: Medical Science. 2017)
- [29] S. F. Wilson, & J. F. Giddens. (2017). *Health assessment for nursing practice* 6th edition. Elsevier Mosby. (Translated by K. H. Lee et al., Health assessment for nursing practice 6th edition: Chapter 1. Introduction to health assessment. 1-7. Seoul: Hynmonsa. 2017)
- [30] J. Y. Park, C. H. Woo, & H. Kim. (2019).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tress, communication, voice behavior, silence behavior, and silence motivation on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in Korea armed forces nursing academy cadet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9(5), 473-498. DOI : 10.22251/jlcci.2019.19.5.473

오 은 영(Eun-Young Oh)

[정회원]



- 2015년 8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박사)
- 2018년 8월 ~ 2020년 9월 현재: 꽃동네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인지기능, 인지훈련, 치매, 뇌졸중, 대학생, 핵심역량,
- E-Mail : oey0443@hanmail.net